

결과보고서 초록

이름	박소영	구분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연구제목	한글	《조선의 임수》(1938)에 나타난 한반도 숲의 자연문화와 식민지적 재해석	
	영문	Reframing Colonial Korea's Forests through Protection Forests: <i>The Forests of Joseon</i> (1938)	
연구기간	2025.3.1 ~ 2025.12.31		
색인어	한글		
	영문	Bibo forest, Protection forest, Pungsu (Korean geomancy), Boundary object, Colonial Korea, Imperial forestry, Environmental governance	

이 연구는 일본 식민지 시기 도쿠미츠 노부유키가 편찬한 산림조사서 『조선의 임수』(1938)를 제국 산림 과학과 한국의 토착 지식 사이에서 이루어진 인식론적 협상의 핵심 장으로 분석한다. 특히 산과 마을 사이의 기(氣)의 흐름을 조절한다고 여겨졌던 풍수적 숲인 비보림에 주목하여, 이들 숲이 제국 임학의 기능주의적 논리 속에서 어떻게 ‘보안림’으로 재분류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경계 객체(boundary objects) 개념을 이론적 틀로 삼아, 본 연구는 동일한 숲이 한편으로는 우주론적 존재로, 다른 한편으로는 재해 방지 인프라로 해석되는 방식을 드러낸다. 많은 항목에서 비보림은 기술적·실용적 효용으로 설명되지만, 한지원 사례와 같은 일부 기록에서는 풍수 우주론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숲이 비인간 행위자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긴장은 식민지 지식 생산이 지닌 부분적이고 불균등한 성격, 즉 토착적 존재론이 종속되었으나 완전히 소거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류 작업을 제국의 환경 통치 전략이라는 더 넓은 맥락 속에 위치시키며, 존재론적 환원에도 불구하고 비보림이 여전히 행위적 힘을 발휘했음을 밝힌다. 『조선의 임수』에 대한 면밀한 독해를 통해, 본 연구는 숲이 상이한 인식론들 사이를 번역하는 장소로 기능했음을 밝히고, 제국 산림과학의 한계와 환경에 대한 관계적·우주론적 이해가 지속되었음을 드러낸다.

This study examines *The Forests of Joseon* (1938), a forestry survey compiled by Tokumitsu Nobuyuki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s a key site of epistemic negotiation between imperial forestry science and Korean indigenous knowledge. Focusing on *bibo* forests—geomantic forests believed to regulate energy flow between mountains and villages—the paper analyzes how these sites were reclassified as “protection forests” within the functionalist logic of imperial forestry. Drawing on the framework of boundary objects, the study reveals how the same forests were interpreted both as cosmological entities and as disaster prevention infrastructure. While many entries reduce *bibo* forests to technical utilities, others—like the Hanjiwon case—retain traces of *pungsu* cosmology and present forests as nonhuman actors. This tension highlights the partial and uneven

nature of colonial knowledge-making, in which local ontologies were subordinated but not fully erased. The paper situates this classificatory project within broader imperial strategies of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argues that *bibo* forests, despite ontological reduction, continued to exert agentive force. Through a close reading of *The Forests of Joseon*, the study demonstrates how forests operated as sites of translation between divergent epistemologies, revealing the limits of imperial science and the persistence of relational, cosmological understandings of the environment.

요 약 문

1. 서론

한반도는 국토의 약 70%가 산악지대로 구성된 지형이며, 산과 숲은 인간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 근본적 요소로 작용해왔다. 조선시대 읍지·지리지에서 반복되는 ‘임수’는 숲이 일상생활의 공간적·사회적 구조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록에서 숲은 대개 산과 마을의 관계 속에서 서술되며, 진산/주산이 마을을 보호한다는 공간 논리가 전제된다. 이 기(氣)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풍수 실천으로 비보림이 조성되었고, 비보림은 마을의 안녕을 좌우하는 기의 흐름에 조응하며 복지를 조절하는 공간으로 이해되었다. 즉 비보림은 상징적 경관을 넘어 우주론적 질서 속에서 행위하고 매개하는 존재였다.

이러한 숲 이해는 도선의 비보사탑설로 거슬러 올라가며(9세기 말), 고려시대에는 국가적 실천으로 자리 잡고 조선시대에는 법제(경국대전의 벌목·경작 금지)로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1910년 병합 이후, 특히 3·1운동 이후 ‘내지연장주의’가 추진되며 숲은 통계·법제·전문지식에 의해 통치 가능한 자연환경으로 재구성된다. ‘민등산’ 담론은 조선의 경관을 황폐한 환경으로 표상하며 제국의 개입을 과학적·합리적 대응으로 정당화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폐허’ 서사와 어긋나는 숲들이 다수 존재했고, 일부—특히 비보림—은 산과 마을 사이의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려는 풍수적 실천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이를 가장 상세히 기록한 자료가 토쿠미츠 노부유키가 1938년 편찬한 《조선의 임수: 수변보안림》이다. 이 보고서는 고전 문헌과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220개 숲을 기록하고 10개 기능 범주로 분류한다. 본 연구는 이 텍스트를 토착 풍수 논리와 제국 산림과학이 병치된 혼성적 기록으로 읽으며, ‘임수’라는 유연한 개념이 근대 일본 임학의 언어 속에서 ‘산림’으로 재규정되고 숲이 재해 방지·홍수 통제·풍해 완화 등 환경 통제 인프라로 전환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동시에 《조선의 임수》는 식민 과학의 투사에 그치지 않고 토착 지식의 지속을 드러낸다. 각 항목의 문헌 발췌-현장 조사-비설(종합 해석) 구성은 병렬처럼 보이지만, 비설이 종합·판단을 수행하는 위계적 서사를 형성한다. 특히 비보림은 우주론적 구조물로 묘사되면서도 근대적 재해 방지 체계의 기능 단위로도 설명된다. 이러한 ‘중첩’의 순간들에서 비보림은 복수 인식론을 점유·연결하는 경계 객체로 작동한다. 본 연구는 (1) 토착 숲 경관의 기능주의적 재조직, (2) 우주론 질서와 제국 분류 논리의 충돌/수용, (3) 비보림의 비인간 행위성이 개념적 경계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핵심 질문으로 삼는다.

2. 숲을 분류하기: 《조선의 임수》가 보안림을 생산한 방식

1908년 《산림법》 이후 조선총독부 산림국 중심의 중앙집권적 체제는 조선의 공공 산지를 관료적 통제 대상으로 전환했고, ‘보호’는 경관 규율·노동 동원·조사/통계의 표준화를 통해 식민 환경을 가시화·통치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 되었다. 이 맥락에서 토쿠미츠의 조사는 임업시험장(FES) 주도로 진행되었고, 고전 문헌에 기록된 조선의 숲을 조사·정리하여 향후 재해관리 정책의 참고 자료로 삼는 목적을 가졌다.

보고서는 각 숲을 문헌-현황-비설로 배열하며, 비설이 최종적으로 기능을 추정·부여한다. 기능 범주는 보호, 종교, 교육, 경관, 위생, 교통, 농업, 수렵, 군사, 공공으로 제시되며, 220개 중 139개가 보안림으로 분류된다. 보안림은 근대 일본 산림 분류 체계에서 차용된 개념으로, 넓게는 풍해·수해·침식 등 재해 완화를 통해 국가 안전에 기여하는 숲(방재림)을 뜻하고, 좁게는 1911년 〈삼림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법적 범주를 가리킨다.

문헌만으로 보호 기능 판단이 어려울 때 토쿠미츠는 기상 통계·홍수 기록·지형 분석 등 보조 자료를 동원해 분류를 정당화했다(예: 역사적으로 군사 요새로 기록된 숲을 유역·강우·홍수 유량 자료로 보안림으로도 분류). 이처럼 ‘보안림’은 숲의 공간적·역사적 복잡성을 임학의 기능 어휘와 행정계획의 언어로 변환하며, 일단 비설에서 보안림으로 규정되면 기존의 토착 의미는 축소·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비설은 숲을 제국의 법제·행정 질서로 포섭하는 개념적 재정렬의 텍스트 도구로 기능한다.

3. 산의 기맥을 이어주는 숲

‘한지원’ 항목은 비보림이 식민지 이전 조선의 사회생태적 세계관에서 이해된 방식을 가장 상세히 보여주는 사례다. 토쿠미츠는 진산/주산 전통과 비보림 조성 실천을 경관 속 상보적 요소로 제시하며, 《고려사》·《여지승람》 등의 인용을 통해 송악산·삼각산·남산 등이 도시를 수호하는 주산으로 인식되어 왔음을 설명한다. 또한 산이 신앙과 의례를 통해 재생산되며 정신적·사회적 세계를 매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항목에서 토쿠미츠는 한국 풍수의 핵심 개념으로 기맥을 제시한다. 땅의 생기가 산맥을 따라 이동하고(내룡), 정착지는 그 결집점에 따라 선택되며, 숲은 그 흐름을 조절·강화한다. 한지원 숲은 낭산에서 명활산으로 이어지는 주맥의 중간 지점에 의도적으로 놓인 것으로 설명되며, 주민들이 훼손 위기에서 반복적으로 청원한 사실은 숲을 ‘자원’이 아니라 기 흐름과 마을 안녕을 좌우하는 존재로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토쿠미츠가 인용한 ‘대지는 산의 살/바위는 뼈/나무는 머리카락’이라는 구절은 숲의 보존이 이용·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안정성의 조건으로 서술되는 지점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한지원은 비보림이 산-마을 사이를 매개하며 인간 삶에 개입하는 비인간 행위자로 이해되는 순간을 드러내며, 《조선의 임수》가 전통 지식과 제국 과학 사이의 협상을 연출하는 핵심 장면이 된다.

4. 재해 방지림으로서 비보림

반면 계림·비보수 등 다수 항목에서 비보림은 제국의 기능주의 논리에 의해 재해 완화 도구로 재해석된다. 토쿠미츠는 비보림이 풍수의 기술로 설명된다고 인정하지만, 이를 우주론적 틀로 확장하지 않고 ‘필요성’—즉 바람·홍수 같은 환경 위협에 대한 실용적 대응—으로 전환한다. 그는 풍수(風水)·풍해·수해의 언어적 유사성을 활용해 풍수 전통을 방재 논리로 재정의하는 수사적 전략을 구사하고, 풍수의 관계적 체계는 기상학적 고려사항으로 축소된다.

또한 그는 정착지·숲의 현장보다 왕릉 방위 통계를 원용해(예: 남향 비울) 북서풍 회피와 연결시키며 ‘북을 막고 남을 향하는’ 배치를 합리화한다. 계림은 보고서 두 번째 항목이자 비보림이 처음 등장하는 사례로, ‘종교림’이라 지칭한 뒤 곧바로 보안림으로 분류하며 방풍 기능을 강조한다. 이후 고양수·덕진지 등에서는 1925~1934년 풍속 기록을 통해 보호 효과를 입증하고 ‘비보 효능’ 같은 표현을 만들어 토착 개념을 기술 어휘 안에 재배치한다. 이 과정에서 비보림은 산의 기 흐름을 매개하는 존재에서 재해 관리를 위한 물리적 장벽으로 번역되지만, 동시에 그 번역은 숲의 물질적 효과에 대한 제국적 ‘등록’ 위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존재론의 축소와 기능의 강조가 결합된 전환으로 나타난다.

5. 비보림의 비과학적 토대로서 풍수

《조선의 임수》는 비보림을 한반도 문화의 독특한 실천으로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곧 풍수를 ‘비과학적’ 믿음으

로 규정함으로써 그 인식론적 기반을 약화시킨다. 조산 항목 등에서 풍수는 설명 불가능한 힘에 대한 믿음으로 묘사되고 정령 숭배·점복에 비유된다. 나아가 통치자들이 숲의 실용적 효용을 알면서도 민중의 비이성적 신앙을 이용해 산림 보호를 수행했다는 논리로 귀결되며, 풍수는 과학의 경계 밖 ‘문화적 유물’로 축소된다.

그 결과 비보림은 제국 임학의 분류 체계에 편입되면서도, 그 형성을 지탱한 우주론적·관계적 존재론은 체계적으로 배제된다. 그러나 비보림은 텍스트 안에서 우주론의 표현/기능적 인프라/문화적 잔존물이라는 상충하는 틀 사이에 놓이며 일관되게 고정되지 않는다. 이 불안정한 위치 자체가 비보림을 서로 다른 지식 체계가 필요에 따라 해석·재구성할 수 있는 경계 객체로 만들고, 완전한 중립화가 불가능했던 비인간 행위성의 흔적을 물질적·관료적 층위에서 남긴다.

6. 결론

비보림은 《조선의 임수》에서 주변화되었으나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다. 보고서는 기능주의 분류(보안림)를 통해 한국의 숲 경관을 재조직하고 숲의 역사적·행위적 의미를 종속시키지만, 그 재배열은 불완전하고 불균등하다. 한 지원 같은 항목에서는 풍수 우주론이 분류 체계를 간헐적으로 교란하며 숲을 인간 삶에 개입하는 비인간 행위자로 드러낸다. 반면 다수 항목에서는 우주론적 차원이 ‘과학적 엄밀성 결여’라는 명목 아래 피상적으로 참조되거나 전략적으로 배제되며, 비보림은 방풍·방수 등 재해 방지 인프라로 재해석된다.

그럼에도 제국의 범주화는 숲의 생태적 효과에 대한 관찰·추론(기상·재해 데이터)에 기대었고, 이는 비보림의 행위성이 제국 과학의 틀 안에서 일정 부분 ‘등록’되었음을 시사한다. 즉 숲의 효과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행위성이 기능주의 합리성의 언어로 번역되며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조선의 임수》(1938)는 문화통치기·내지연장주의 맥락에서 제국이 과학적 임학으로 식민지 환경을 재조직하려 한 노력을 반영하지만, 해방과 함께 그 분류 체계는 실질적 효력을 상실한다. 해방 이후 보안림 개념은 제도적으로 계승되었으나, 비보림은 그 틀 밖에서 공동체 중심의 마을숲으로 존속했다. 결국 《조선의 임수》는 식민지 환경 통치가 분류·지식 생산과 결부된 우발적·협상적 실천이었음을 보여주며, 비보림은 제국 과학과 토착 우주론, 인간과 비인간 행위성이 교차하는 경계 객체로서 그 미완성과 한계를 드러내는 핵심 장소로 남는다.

목 차

1. 서론
 2. 숲을 분류하기: 《조선의 임수》가 보안림을 생산한 방식
 3. 산의 기맥을 이어주는 숲
 4. 재해 방지림으로서 비보림
 5. 비보림의 비과학적 토대로서 풍수
 6. 결론
-

1. 서론

한반도는 산맥이 뼈대를 이루는 지형으로 국토의 약 70%가 산악 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 산과 숲은 인간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요소로 작용해왔다.¹⁾ 임수라는 용어는 조선시대 읍지나 지리지의 지리 항목에서 일관되게 등장하는 표현으로 숲이 일상생활의 공간적, 사회적 구조 속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²⁾ 이러한 기록에서 숲은 대체로 주변의 산과 마을의 관계 속에서 묘사되며 경관을 공동체와 연결하는 공간적 논리를 드러낸다. 대부분의 마을은 진산 혹은 주산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이 산은 마을을 보호한다고 여겨졌다.³⁾ 이러한 기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풍수 실천의 일환으로 비보림이 조성되었다.⁴⁾ 비보림은 마을의 안녕을 좌우하는 기의 흐름에 조응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마을의 복지를 조절하는 기능을 지녔다. 이러한 숲은 단순히 상징적 경관에 머물지 않고 우주론적 질서 속에서 행위하고 매개하는 존재로 이해되었다.⁵⁾

한국에서 이러한 숲의 이해는 9세기 말 승려 도선이 밀교적 불교사상과 예언사상을 통합하여 제시한 비보사탑설로 거슬러 올라간다.⁶⁾ 본래 이 사상은 땅의 기를 안정시키기 위한 절과 탑의 건립을 통해 표현되었으나, 이후 그 개념은 숲의 조성으로 확장되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비보림은 국가적 차원의 실천으로 자리 잡았으며 고려사에는 '수도의 진산인 송악산'이 지형이 훼손된 곳의 풍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식재되어야 한다는 기록이 나타난다.⁷⁾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인식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경국대전은 비보림 내의 벌목이나 경작을 금지했다.⁸⁾ 이처럼 한반도의 숲은 자연, 인간, 국가의 생명력을 매개하는 존재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세계관은 이후 식민지 임학이 토착 생태사유와 맞서고 재해석하는 지적 토대가 되었다.⁹⁾

조선시대, 즉 일본의 식민지배 이전 마지막 왕조 체제 내내 지속되었던 숲의 위상과 의미는 일본 식민체제 하에서 급격히 재구성되었다. 1910년 한국 병합 이후, 제국은 한반도를 통치 가능한 자연환경으로 편입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시행했다. 특히 1919년 3.1운동이 무단통치의 한계를

1) Kim 2021; Kim and Lee 2017.

2) 한자 임(林)은 일반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성되었거나 질서정연한 형태의 숲을 가리키는 반면, 수(藪)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 잡목림, 혹은 저지대의 습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읍지, 지리지, 백과사전적 문헌들에서는 이 두 용어가 빈번하게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특히 임수(林藪)라는 복합어는 특정한 숲의 유형을 지칭하기보다는, 숲 일반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임수》 속 다수의 항목에서 동일한 수림 지역이 임과 수라는 용어로 병렬적으로 서술되며, 두 개념 사이의 명확한 구분은 제시되지 않는다.

3) Kwon 2016; Choi 2008.

4) Park 2006; Kim and Jang 1994.

5) 이 해석은 비인간 존재를 의도적 주제로 상정하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위치 지어진 인식론들 속에서 효과를 산출하는 행위자로서 그 행위적 역량(agentive capacities)에 주목해야 한다는 Rees의 제안을 따른다. See Rees (2017).

6) Lee and Park 2010.

7) Lee and Park 2010.

8) Gyeongguk daejeon (Great Code of State Administration), vol. 2, "Hojeon (Ministry of Taxation)," section "Jeont'aek (Land and Property)."

9) 식민지 시기에 생산된 일본어 1차 사료 가운데, 토쿠미츠 노부유키의 《조선의 임수》(1938)는 행정적·학술적 맥락에서 비보를 명시적으로 논의한 사실상 유일한 텍스트로 평가된다. 한편 오키나와의 풍수 전통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포호(pōho, 抱護)가 확인된다. 포호는 산과 마을을 둘러싸 산의 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성된 숲이나 지형적 구조물을 가리키며, 해안 방풍림(hama-pōho)이나 농경지를 둘러싸 인위적으로 식재한 수림을 포함한다. 기능적으로 포호림은 비보림과 유사하지만, 비보가 결핍을 보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데 비해, 포호는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감싸고 가두는 보다 폐쇄적이고 포괄적인 보호 방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포호 개념은 일본 본토의 임학이나 제도적 산림 관리 체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갖지 않으며, 오키나와 지역에 특유한 민속적 풍수 실천으로 이해된다. 일본의 풍수적 숲에 대한 논의 및 동아시아 비교 연구에 대해서는, see Shibuya (2005).

드러낸 이후, 일본의 통계조사, 법제화, 과학적 전문지식을 통한 본토와의 통합을 강조하는 '내지 연장주의'를 추진했다.¹⁰⁾ 이러한 맥락 속에서 숲은 단순한 천연자원이 아니라 영토 통제, 재해 완화, 그리고 식민지적 데이터 체제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부상했다.¹¹⁾ '민동산' 담론을 통해 조선의 경관은 무분별한 벌목으로 황폐해진 것으로 묘사되었고, 제국의 개입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으로 정당화되었다.¹²⁾

그러나 식민 당국자들과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마주한 실제 상황은 '환경적 폐허'라는 지배적 서사에 항상 부합하지 않았다. 한반도 전역의 많은 숲이 마을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보존되고 있었던 것이다.¹³⁾ 그중 일부 숲, 특히 비보림¹⁴⁾은 산과 마을 사이의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풍수적 실천의 증거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비보림의 존재를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자료 중 하나가 바로 《조선의 임수: 수변보안림》이다. 이 보고서는 토쿠미츠 노부유키가 1938년 편찬했으며, 식민지 시기 산림자원의 관리 및 개발을 위해 설립된 임업시험장의 후원 아래 제작되었다.

《조선의 임수》는 고전 조선 문헌과 현장 조사를 기반으로 한 산림 조사 보고서이다. 총 220개의 숲을 기록하고 이를 10개의 기능적 범주로 분류했다.¹⁵⁾ 본 연구는 이 보고서를 토착 풍수 논리와 제국의 산림 과학이 병치된 혼성적 기록으로 접근한다. 이 안에서 '임수'라는 유연한 개념은 근대 일본 임학의 언어 속에서 '신린'으로 재규정된다. 부제가 시사하듯, 이 숲들은 재해 방지, 홍수 통제, 풍해 완화 등 보호 기능을 중심으로 해석되며, 환경 통제의 인프라로 전환된다.

그러나 《조선의 임수》는 단순히 식민 과학의 논리를 지역 경관에 투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목적, 구조적 형식, 서사적 내용 전반에서 토착 지식의 지속성이 부각된다. 서문에서 토쿠미츠는 역사적 기록을 미래 재해 대비를 위한 지침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했다. 각 숲 항목에는 문헌 발췌, 현장 조사, 기능적 해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병렬적으로 제시되지만 서로 다른 인식론이 공존하고 경쟁하는 층위적 서사를 형성한다. 특히 해석적 부분에서는 토착 풍수와 제국 임학 사이의 융합과 긴장이 강조된다.

특히 비보림은 땅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마을을 보호하는 풍수적 구조물로 묘사되는 동시에, 근대적 재해 방지 체계 속의 기능적 단위로도 설명된다. 즉 동일한 숲이 우주론적 관점과 과학적 관점 모두에서 해석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첩의 순간들에서 《조선의 임수》는 매개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경관이 복수의 인식론적 영역을 점유하고 연결하는 '경계 객체'로서 작동하는 방식을 기록한다.¹⁶⁾

이러한 해석적 긴장은 환경사와 식민 연구의 보다 광범위한 주제들과 연관된다. 학자들은 자연

10) Seo 2020.

11) Choi 2007; Kim 2022. 췌

12) Fedman 2020; See Jeon 2022. 한국을 '민동산의 땅'으로 묘사한 서사는 식민지적 구성물이었지만, 대규모 산림 황폐화가 실제로 발생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산림 고갈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벌목, 온돌 난방의 확산에 따른 연료용 땃감 수요 증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의 부재, 그리고 지배 엘리트에 의한 산림 자원의 사유화 등이 지적된다. 또한 조선 후기와 식민지 시기에 활동한 외국인 여행자들의 기록에서도 산림 훼손의 징후가 관찰된다. See Bird 1898.

13) Kim and Jang 1994.

14) 비보림이라는 용어는 기능적 측면에서 보호림과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두 개념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보호림(保安林)은 일본 제국 임학 하에서 도입된 법적·조림학적 범주로서, 주로 재해 방지 기능을 기준으로 정의되었다. 반면 비보림은 우주론적 사유에 기반한 숲으로, 본래 제도적 분류 체계와는 결부되지 않은 개념이었다. 마을 숲의 한 유형으로서 비보림에 대해서는, see Park (2006).

15) Jang 2006.

16) For the concept of boundary objects, See Star and Griesemer 1989.

의 재조직화를 목표로 한 제국의 기획이 지식 생산과 분리될 수 없으며, 분류 행위 자체가 통치의 한 형식임을 밝혀왔다.¹⁷⁾ 특히 숲은 이러한 시도의 전략적 현장으로 작용한다.¹⁸⁾ 숲은 영토 통제, 재해 대응, 사회 재구조화의 인프라로 기능했다.¹⁹⁾ 제국 임학은 단순한 자원 관리에 그치지 않았으며 자연과 인간 사회의 관계를 재정의함으로써 국가 권위를 공고히 했다.

최근 연구들은 제국의 임학 지식이 상층부로부터 일방적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사회 생태적 맥락과의 상황적 만남을 통해 형성된 것임을 보여준다.²⁰⁾ 데이비드 페드먼은 《Seeds of Control》에서 일본이 조선을 '민둥산과 황폐한 산의 땅'으로 묘사하고 이러한 이미지를 특히 산림 관리 영역에서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했음을 밝혔다. 그는 또한 그 결과로 나타난 정책들이 지역 실천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었다.²¹⁾ 페드먼의 통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선의 임수》를 참조하여, 특히 비보림에 대한 항목들이 제국 임학과 토착 우주론 사이에 얽힌 협상을 어떻게 포착하는지 살펴본다. 경계 객체의 분석 틀을 통해 본 연구는 단일 텍스트 안에 상이한 인식 체계가 공존하는 방식을 강조한다.

이러한 역사학적 맥락에 기반해, 본 연구는 《조선의 임수》를 토착 지식과 제국 지식 사이의 경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능동적으로 재구성되는 장소로 분석한다. 이 책의 비보림에 대한 기능주의적 재구성과 우주론적 논리를 가시화하려는 시도는 제국 임학이 토착 생태 논리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비보림은 재해 완화나 에너지 균형 등 실제적 효과를 발휘한 숲으로서, 번역과 조정의 핵심 장소가 되었다. 그들의 '경계 객체'로서의 역할은 지식이 식민 과학 속에서 어떻게 분할되고 재구성되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중심 질문에 의해 이끌어진다. 첫째, 《조선의 임수》는 토착 숲 경관을 어떻게 식민지 기능주의적 틀 속에서 재조직했는가? 둘째, 비보림의 분류 과정에서 조선의 우주론적 질서는 제국 임학의 분류 논리와 어떻게 충돌하거나 이를 수용했는가? 셋째, 비보림은 비인간 행위자로서 그 구체적 효과와 의미를 통해 제국 과학과 토착 지식 사이의 개념적 경계를 어떻게 재구성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본 연구는 《조선의 임수》에 수록된 숲들, 특히 비보림이 인간 공동체에 미친 물질적 효과를 통해 경계 객체로서 기능했으며, 그 결과 제국 과학과 토착 우주론 사이의 인식론적 번역의 장으로 작동했음을 탐구한다.

2. 숲을 분류하기: 《조선의 임수》가 보안림을 생산한 방식

1908년 《산림법》 제정 이후 조선총독부 산림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고도의 중앙집권적 체제 아래에서 조선의 식민지 임업이 운영되었다. 이 법은 보존, 산업 개발, 군사 목적을 명분으로 광범위한 토지를 reserve forests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조선의 공공 산지를 관료적 통제의 대상으로 전환하였다. David Fedman(2020)은 《Seeds of Control》에서 식민지 임업이 단순한 자원 관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태적 형태로 표현된 국가 권력으로 기능했다고 설명한다²²⁾. '보호'

17) Grove 1996; Beinart and Hughes 2007.

18) Barton 2002

19) Bennett 2015; Choi 2007.

20) Rajan, 2006.

21) Fedman 2020.

22) Fedman 2020.

의 수사와 숲 관리의 도덕적 이상을 통해, 일본의 제국 임업은 내지의 과학적 임업 원칙을 조선/대만/만주 등 식민지 전역으로 확장하면서 조사/교육/통계의 표준화를 이루었다. 이 체제 속에서 보호는 경관을 규율하고 노동을 동원하며 식민 환경을 과학적으로 가시화하고 행정적으로 통치 가능하게 만드는 통치 기술이 되었다. 바로 이러한 제국 임업 체제 속에 1938년 토쿠미츠 노부유키의 조사가 위치한다.

《조선의 임수》는 조선총독부 산하의 임업시험장(FES)에 의해 간행되었다. 이 보고서는 식민지 관료이자 계약 연구원이었던 토쿠미츠 노부유키의 문헌 조사와 현지 조사를 모두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인 임업시험장 연구가 식생 조사나 식물학적 실험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토쿠미츠의 임무는 고전 문헌에 기록된 조선의 숲을 조사하는 것이었다.²³⁾ 그의 연구 결과는 처음에 《조선 치산 치수사고》로 편찬되었고,²⁴⁾ 이후 수변 숲에 대한 추가 연구를 더해 《조선의 임수》로 확장되었다. 이 책의 목적은 조선의 역사적 산림 기반 재해 관리 실천을 고찰하고, 향후 정책 수립의 참고 자료로 삼는 데 있었다.²⁵⁾

보고서는 각 숲 항목을 문헌, 현황, 비설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종합하여 기능 분류에 도달하도록 조직되어 있다. 문헌 부분은 《조선왕조실록》, 읍지, 지리지 등을 포함한 역사 자료의 연대기적 발췌문으로 구성된다.²⁶⁾ 현황에서는 1920~1930년대에 수행된 기반하여 지형, 위치, 식생을 기술한다. 비설은 앞선 두 부분을 종합하여 해당 숲의 기능을 추정한다. 이러한 구조는 병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계적이다. 비설은 다층의 정보를 통합하고 최종 분류에 도달하며, 각 숲에 하나²⁷⁾ 이상의 기능—보호, 종교, 교육, 경관, 위생, 교통, 농업, 수렵, 군사, 공공—을 부여한다.

보고서에 기록된 220개의 숲 중 139개는 보안림으로 분류되었다.²⁸⁾ 이 용어는 근대 일본 산림 분류 체계에서 차용된 것이다.²⁹⁾ 넓은 의미에서 보안림은 풍해, 수해, 토양 침식 등의 재해를 완화함으로써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삼림을 의미한다. 이러한 숲들은 방재림으로 기능하였으며,

23) 토쿠미츠 노부유키(徳光宣之)는 1924년부터 1943년까지 조선총독부 산하에서 활동한 산림·공업 분야의 기술 관료였다. 그는 전라남도청 공업과에서 근무한 뒤, 1933년 임업시험장으로 전속되었다. 그의 이름은 1927년 제주 지역의 수해 구호 관련 공식 기록에서 처음 확인되는데, 이는 그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재해 대응 업무에 관여했음을 시사한다. 임업시험장 재직 기간 동안 그는 편집 및 조사 업무에 참여했으며, 《조선의 임수》의 편찬을 비롯해 산림경제(山林經濟)에 관한 여러 논문을 발표했다.

24) Tokumitsu 1935.

25) Tokumitsu 1938 on 1-2.

26) Jang 2006. 《조선의 임수》는 총 85종의 역사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같은 정사(正史)를 비롯해,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 같은 지리서, 『경국대전』(經國大典)과 같은 법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와 같은 백과사전적 편찬물, 그리고 문집·잡록·시문 평론·군사서 등 다양한 문헌이 포함된다. 특히 『징비록』(徵戡錄)과 같은 군사·재해 관련 저술도 함께 참조되었다.

27) 《조선의 임수》는 숲을 열 가지 기능 범주로 분류한다. 그 범주는 다음과 같다. 종교림(사당, 왕릉, 성소 등), 교육림(천연기념물, 역사적 숲), 경관림(의례 공간, 사찰, 명승지), 위생림(마을 공터, 휴식림, 방호수림), 교통림(가로수, 역참 주변 숲), 보안림(홍수·풍해·비사·침식 방지), 농업림(제방 숲, 관개 수림), 수렵림(방목지, 수렵 보호구역), 군사림(성곽, 국경 방어림), 공공림(관유림, 과수원, 특수목적 식재지)이다. See Tokumitsu 2007 on 17.

28) Jang 2006.

29) 보안림(保安林) 개념은 19세기 독일에서 형성된 Schutzwald 전통에서 기원한다. Schutzwald는 산사태, 홍수, 눈사태 등으로부터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숲을 의미하며, 근대 산림학이 목재 생산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숲을 공공적 보호 자산으로 제도화하기 시작한 전환점을 보여준다. 메이지 시기 일본은 근대 국가 건설의 일환으로 이러한 독일 산림과학과 관련 법제를 수용하였고, 1897년 제정된 산림법에 보안림 조항을 도입했다. 독일에서 수학한 임학자 혼다 세이로쿠는 이 개념을 일본적 맥락에서 정의하고 재해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처럼 보안림 개념은 독일과 일본을 거쳐 이동하며 형성된 제국 임학의 번역된 산물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의 임수》에 나타난 '보호'의 개념 역시 서구 합리주의와 조선의 풍수적 질서가 교차하는 경계 지대로 이해될 수 있다.

그 목적은 《일본산림사》(1934) 등 제국 임학 문헌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³⁰⁾ 좁은 법적 의미에서 보안림은 1911년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삼림령> 제4조에 따라 공식적으로 지정된 숲을 가리킨다.³¹⁾

《조선의 임수》의 서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사 대상이 된 숲들은 재해 방지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곳들이며, 이는 보안림의 넓은 정의에 부합한다. 조사는 주로 재해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간주된 수변 숲에 초점을 맞추었다. 역사 기록과 현장 조사가 결합되었으며, 결과는 기능적 관점에서 해석되었다. 기존 문헌 자료가 부족하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보호적 효용을 추정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이 사용되었다.³²⁾

문헌적 근거만으로 특정 숲의 보호 기능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쿠미츠는 기상 통계, 홍수 기록, 지형 분석 등의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분류를 평가했다. 예컨대, 역사 문헌에는 장기임수가 해적 침입에 대비한 군사 요새로 기록되어 있지만, 동시에 보안림으로도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이중 분류는 유역 단위 자료와 장기 환경 기록을 통해 정당화되었다. 기상 자료에 따르면 상류 유역 면적은 29제곱킬로미터, 일 최대 강우량은 210밀리미터, 최대 홍수 유량은 초당 163입방미터에 달했다.³³⁾ 이 수치는 해당 숲이 주변 농경지를 홍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보안림의 분류는 역사적 기록보다는 실증적 데이터나 환경적 평가에 더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³⁴⁾

'보안림'이라는 용어는 숲의 공간적/역사적 복합성을 임학의 기능적 어휘와 잠재적 행정계획의 언어로 변환하는 분류 방식으로 작동했다. 보안림이 <삼림령>에 의해 규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용어는 숲을 제국의 법제적 통치 질서 안으로 포섭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숲이 역사적으로 여러 목적을 수행해왔더라도, 일단 비설에서 보안림으로 분류되면 이러한 복합적 층위는 대체되거나 축서되었다. 비설은 역사적 자료와 조사 데이터를 종합하면서 명확한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기능적 해석을 부여했다. 그 결과, 기존의 토착적 의미는 종속되었고 보안림이 지배적 틀로 보았다. 이러한 기능주의적 관점을 통해 숲은 제국의 재해 관리 인프라 속에 위치하게 되었다. 따라서 비설은 이러한 개념적 재정렬을 수행하는 텍스트적 도구로 기능한다.

이러한 분류 구조는 독자들이 숲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비설에서 부여된 기능은 다른 역사적 연관성보다 더 큰 해석적 비중을 얻었다. 보고서는 기능 중심의 독해를 장려하며, '보안림'이라는 용어를 가장 빈번히 호출하고 제도적으로 강화된 범주로 만들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조선의 임수》는 숲의 다층적 의미를 단일한 효용의 틀로 재조직했고, 이를 식민지 재해

30) 《일본산림사》(日本山林史)는 1934년부터 1936년 사이에 간행된 일본 임업의 대표적인 통사(通史)이다. 이 저작은 내무성 산림국(內務省 山林局) 출신의 고위 관료였던 엔도 야스타로(遠藤安太郎)의 주도로 편찬되었다.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일본에서 추진된 대규모 산림 조사와 기록화 사업에 대해서는 see Totman 1983.

31) 森林令明治44年法律第30號第1條及第2條ニ依リ勅裁ヲ得テ茲ニ之ヲ公布ス ["Forest Ordinance, Meiji 44, Law No. 30, Articles 1 and 2, Promulgated by Imperial Decree"], Official Gazette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朝鮮總督府官報), no. 241 (June 20, 1911): 1, online: https://db.history.go.kr/id/gb_1911_06_20_a02410_0010 (accessed 17 March 2025)

32) 《조선의 임수》는 공식적인 행정 문서는 아니었으나, 식민지 산림 정책의 핵심 기관이었던 임업시험장(FES)에 의해 편찬되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이미 지정된 보안림을 열거한 기록이라기보다는, 향후 보안림으로 지정·관리될 가능성을 지닌 숲들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분류하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

33) See the entry Janggi-imsu (장기임수, 長岐林藪), Tokumitsu 2007, on 357-363.

34) 다만 일부 사례에서는 특정 숲의 재해 방지 기능이 명시적으로 기록된 예외도 확인된다. See Dongjisu (동지수, 冬至藪) and Haepyeongso (해평수, 海平藪) entries in Tokumitsu 2007, on 241-246.

통치 체계 속에 내재시켰다. 이 조사는 토착 지식과 문화적 기억이 풍부한 숲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지만, 그 조직 방식은 결과적으로 이 숲들을 기능주의적 분류 질서에 고정시켰다. 다음 절에서는 이 논리가 특정 숲 유형, 특히 한국의 풍수 전통 내에서 독특한 범주인 비보림에 적용될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본다.

3. 산의 기맥을 이어주는 숲

《조선의 임수》의 '한지원' 항목은 비보림이 식민지 이전 조선의 사회생태적 세계관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를 가장 상세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를 제공한다. 토쿠미츠 노부유키는 진산의 원리와 비보림을 조성하는 풍습적 실천을 경관 속에 내재된 상보적 요소로 소개했다. 그는 고전 문헌과 현장 관찰을 함께 활용하여 풍수에 기초한 숲의 우주론적 이해를 재구성했다. 《고려사》, 《여지승람》과 같은 문헌을 인용하며, 평양의 송악산, 서울의 삼각산, 경주의 남산이 각각의 도시를 수호하는 주산으로 인식되어 왔음을 설명했다.³⁵⁾ 이러한 서술을 통해 토쿠미츠는 산이 한국의 도시 정착지의 생기적 기반을 형성하는 공간 논리를 부각시킨다.

그는 또한 이러한 수호산 전통이 지역의 신앙과 의례적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 왔음을 강조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

한반도의 모든 주요 마을에는 인식된 수호산이 있으며 평야 지대와 같이 산이 없는 곳에서는 신목이 의례 생활의 중심으로 기능한다… 경주에서는 주민들이 유명한 산에 신이 거주한다고 믿으며 이에 따라 공동 의례를 행한다.’

이 기록은 산이 정신적 세계와 사회적 세계 사이를 매개함을 보여준다.³⁶⁾

풍수적으로 한지원의 숲과 연결된 낭산은 이러한 지속적 개입을 통해 보존된 장소로서 언급된다.³⁷⁾ 이는 상부에서의 보존이 아니라 오랜 신앙적 실천의 결과로서 숲의 존재가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계적 경관을 보다 정밀하게 설명하기 위해 토쿠미츠는 기맥 개념을 소개했다. 이는 한국의 토착 지리사상의 핵심 개념으로, 그는 조선의 풍수에서 땅의 생기가 산맥을 따라 이동하며, 이러한 흐름이 내룡 개념을 통해 구체화된다고 설명했다. 정착지는 이 기맥의 결집점에 따라 선정되었으며, 수호산은 이 생기 구조의 주요 축으로 작동했다. 이러한 논리 아래에서 숲은 기의 흐름을 조절하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비보림은 교란된 흐름을 복원하거나 안정화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공간적/생기적 조정을 위한 환경적 장치로 기능했다.

한지원의 숲은 풍수 논리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³⁸⁾ 토쿠미츠는 이 숲이 낭산에서 명활산

35) Tokumitsu 2007 on 78-81.

36) Ibid.

37) 풍수(pungsu, 風水)는 한국의 지리적·우주론적 실천을 가리키는 용어로, 중국의 풍수(fengshui, 風水)와 비교 가능하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두 전통은 공통의 우주론적 토대를 공유하지만, 풍수는 한국의 특수한 사회·생태적 맥락 속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지역적 존재론과 실천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어 로마자 표기인 pungsu를 유지한다. 한국 풍수의 형성과 전개에 대해서는 Yi(2001)와 Choi(2015)를 참조하라. 특히 토쿠미츠 노부유키가 《조선의 임수》에서 지적하듯, 비보림(裨補林)은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풍수적 개입의 한 형태로, 한국 경관 우주론의 독자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국·중국·일본의 풍수에 대한 비교 연구로는, see Shibuya 2005.

38) 한지원이 이례적으로 상세한 풍수 원리 설명과 함께 다루어지는 이유는, 해석상의 예외라기보다는 토쿠미츠 노부유키의 서사 전략과 편집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임수》에서 한지원은 비교적 초반부(제4항목)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 지점에서 토쿠미츠

으로 이어지는 주맥의 증가나 지점에 위치하며, 명활산은 더 높고 생기적으로 최대로 강력한 지점이라고 설명한다. 이 숲의 위치는 땅의 기 흐름을 증폭시킨다고 여겨졌다. 따라서 한지원은 임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풍수 원리에 따라 의도적으로 위치한 것이다. 이러한 체계에서 숲은 산과 마을 사이의 매개적 존재가 되었으며, 그 물질적 행위성은 지형의 생기적 coherence와 인간 공동체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숲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그 훼손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에서도 확인된다. 한지원이 훼손의 위협을 받았을 때, 주민들은 숲을 단순한 자원이 아닌 더 큰 의미를 지닌 존재로 간주하며 반복적으로 청원과 탄원을 제출했다. 한지원 항목에 따르면, 주민들은 숲을 파괴하면 산에서 흘러오는 기의 흐름이 손상되어 마을의 안녕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³⁹⁾ 이러한 탄원은 산, 숲, 인간의 삶이 공유된 생태적, 정신적 질서 속에 얽혀 있다는 세계관을 반영한다. 이 탄원들은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산을 살아 있는 행위자로, 세계를 생기의 흐름에 의해 움직이는 유기체로 이해한 풍수 우주론의 표현이었다.

토쿠미츠 노부유키는 《명산론》을 비롯한 고전적 풍수 문헌을 인용하여 지역 인식을 contextualize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인용한다. '대지는 산의 살이 되고, 바위는 그 뼈가 되며, 나무는 그 머리카락이 된다. 나무가 황폐해지면, 그것은 곧 산 자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⁴⁰⁾ 이 인용문은 산과 숲을 물리적/상징적 차원에서 통합된 살아 있는 신체로 이해한 오랜 지적 전통 속에 당시의 지역적 신념을 정박시킨다. 여기서 숲의 보존은 '지속 가능한 이용'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안정성의 조건으로서 제시된다.

이러한 풍수적 틀은 한지원과 같은 비보림을 인간과 비인간의 행위성이 지속적으로 협상하는 반응적 장소로 이해하도록 이끈다. 이 세계관에서 산은 신성한 존재이며, 숲은 그 생명력의 가시적 표현이자 스스로 비인간 행위자이다. 비보림은 에너지 흐름의 불균형을 감지하고 조화를 회복한다. 그것은 마을의 삶을 유지하는 정신적/물질적 형성체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역할 속에서 숲은 산의 기맥을 유지하며, 풍수적 관계에 의해 움직이는 기반 형태가 된다. 인간의 해석에 의해 형성되면서도 스스로 반응하는 존재로서, 숲은 공동체적 삶의 조건을 생산하는 물질적 행위자로 등장한다. 숲은 단독으로 행위하지 않고, 산과 인간과 함께 세계의 질서를 조직하는 공동 행위자로 작동한다.⁴¹⁾

따라서 한지원 항목은 풍수 우주론 속에 위치한 비보림의 드물고도 상세한 기록을 제공한다. 이는 《조선의 입수》 전체 구조 속에서 예외적이다. 대부분의 비보림 항목은 우주론적 차원을 최소화

는 진산, 비보림, 기맥을 연결하는 한국 전통 풍수 체계에 대한 유일하고도 완결된 설명을 제시한다. 여기서 인용된 『고려사』(高麗史), 『여지승람』(輿地勝覽), 『명산론』(名山論) 등은 한지원 자체에 대한 직접 기록이기보다는, 풍수의 문화적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참조 문헌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지원은 구체적인 비보림 실체의 사례라기보다는, 토쿠미츠가 풍수라는 이론적 틀을 도입하고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대표적 예시로 기능한다. 따라서 한지원 항목의 상세함은 지역 자료의 풍부함을 반영한다기보다는, 보고서의 초반부에서 비보림에 대한 전통적 해석 틀을 제시한 뒤, 이후 항목들에서 점차 기능주의적 분류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토쿠미츠의 편집적 선택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39)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 『경주선생안』(慶州先生案), 『동경잡기』(東京雜記) 등 여러 자료에 따르면, 이 장소는 16세기 후반부터 역참의 설치, 관개 수로의 굴착, 논으로의 토지 전환 등으로 인해 훼손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해당 장소의 풍수적 안정성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보호를 청원했다. 그 결과 1670년에는 시정 조치가 시행되어, 역참은 철거되어 이전되었고 경작은 중단되었으며 수목이 식재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마을의 생기(生氣)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었다.

40) 『명산론』(연대 미상)의 한 구절은 『세종실록』 세종 30년에 재인용되었으며, 이후 토쿠미츠(2007)에서도 80쪽에서 다시 언급된다.

41) Rees 2017.

하거나 생략한 채 간결하고 기능 중심의 방식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문은 인식론적 긴장을 드러내며, 토착적 세계관이 간헐적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제국 임학의 분류 체계를 통해 재구성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지원은 《조선의 임수》가 전통 지식과 제국 과학 사이의 협상을 어떻게 연출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사례이다. 비보림은 수동적 상징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을 매개하고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행위적 존재이다. 그것은 제국 임학과 지역 풍수의 영역을 가로지르는 경계 객체로 기능하며, 물리적/상징적/반응적 의미가 교차하는 지점에 놓인다. 이러한 역할 속에서 숲은 식민지 인간-자연 관계를 구성하는 데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손에 잡히는 결과를 생성하며, 재해 완화나 에너지 균형의 유지를 통해 인간 사회의 생존과 질서에 필수적인 비인간 행위자로 등장한다.

4. 재해 방지림으로서 비보림

《조선의 임수》에 제시된 비보림의 또 다른 측면은, 제국의 기능주의적 논리에 의해 형성된 재해 완화 도구로서의 재해석에 있다. 토쿠미츠는 한지원과 같이 우주론적 배열을 반영하는 항목을 포함하면서도, 특히 계림과 비보수와 같은 다른 사례들에서는 풍수적 설명을 제거하고 유용한 가치를 강조한다. 이러한 전환은 지역 지식이 제국 임학 담론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전통적 해석의 어떤 요소가 유지되고, 어떤 요소가 배제되었는지를 드러낸다.

토쿠미츠는 계림에 대한 비설에서 "비보림이 '풍수의 기술을 통해 설명된다'고 간략히 인정한다.⁴²⁾ 그러나 그는 이를 우주론적 틀 속에서 탐구하지는 않는다. 대신 그는 그 숲이 '필요성'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때의 필요성은 지역 공동체가 중시한 산과 마을의 우주론적 균형 이라기보다보다 재해 관리의 논리도 이해된다. 그는 '모든 정착민은 바람과 홍수 피해로부터 거주지를 보호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집을 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용하며,⁴³⁾ 숲의 존재를 환경적 위협에 대한 실용적 대응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비보림은 산의 기의 흐름을 보완하는 행위자가 아니라 바람과 물 같은 물리적 힘을 완충하는 장치로 이해되며 제국 임학의 분류 체계에 쉽게 흡수된다.

토쿠미츠는 또한 풍수와 풍해, 수해라는 한자어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이 해석을 강화한다. 그는 풍수가 바람과 물이라는 두 글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풍수 전통이 보다 실용적인 재해 대비 체계로 발전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적 논증은 역사적 문헌에 근거하기 보다는 개념적 경계를 재정의를 위해 사용된 수사적 전략에 가깝다. 그 결과, 풍수의 우주론적/행위적 차원은 배제되고 숲을 재해 완화에 유효한 대상으로 구성하는 데이터 기반 해석만이 부각된다.

이러한 재정의를 토쿠미츠의 자료 활용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실제 정착지 배치나 숲의 현장보다는 풍수 원리에 따라 설계된 왕릉의 방향을 참조했다. 그는 '68%의 왕릉이 남쪽을 향한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이를 북서풍을 피하는 배치와 연결하고, '북쪽을 차단하고 남쪽을 향하는 것'

42) Tokumitsu 2007 on 58.

43) Ibid.

이 이상적이라고 결론짓는다.⁴⁴⁾ 겉으로는 실증적 언어로 포장되어 있으나 이러한 논리는 풍수의 관계적 체계를 기상학적 고려사항으로 축소하고, 비보림을 기후 재해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으로 재구성한다.

이러한 기능주의적 해석은 계림 분석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경주 인근의 해안 평야에 위치한 계림은 '바람이 지형과 충돌하는 곳'으로 묘사되며, 숲은 북서풍과 여름 태풍을 막는 역할을 한다. 토쿠미츠는 이 숲을 '방풍 기능'이 있다는 이유로 보안림으로 분류하며, 그 지리적 위치와 추정된 보호 효과를 근거로 그 지위를 정당화했다.⁴⁵⁾ 숲 형성의 풍수적 우주론은 생략되었고, 분석은 바람의 방향과 속도와 같은 정량적 데이터에만 근거했다.

계림은 《조선의 임수》 전체 보고서에서 두 번째 항목이자, 비보림이 처음 언급되는 항목으로서 이 논리의 핵심 사례이다. 토쿠미츠는 이를 '종교림'이라고 부르며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고 한 뒤, 즉시 이를 보안림으로 분류하고 바람 차단 기능을 강조한다.⁴⁶⁾ 보완이나 기 유지의 함의는 배제되었고, 숲은 바람과 물을 다루는 기술적 해결책으로 재구성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공간적 조율을 위한 우주론적 존재가 아니라, 수문학적/기상학적 인프라로서 제시되었다.

이러한 재구성은 단순한 해석의 전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비보림을 제국 임학의 분류 체계 안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의미했다. 고양수와 덕진지를 포함한 이후의 항목들에서 토쿠미츠 노부유키는 1925년부터 1934년까지 풍속 기록을 인용하여 이들의 보호 효과를 입증하고, '비보 효능'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⁴⁷⁾ 이 표현은 겉보기에는 원래의 의미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국의 기술적 어휘 안에서 비보림을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과거 산과 마을 사이의 생기 흐름을 매개하던 것이 이제는 재해 관리를 위한 물리적 장벽으로 다루어진다.

이처럼 재구성된 맥락 속에서도 비보림은 물질적 존재로서 사라지지 않는다. 토쿠미츠가 수집한 기상 기록과 재해 데이터는 이러한 숲들이 그 재분류의 근거가 된 관찰 가능한 환경적 효과를 경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효과가 지역 공동체에 의해 인식되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제국 임학은 그 잠재적 효용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따라 숲을 재위치시켰다. 이는 우주론적/행위적 차원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숲이 여전히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며, 변화하는 분류 구조 속에서도 비인간 행위자로서 계속 작동했음을 암시한다.

요약하자면, 《조선의 임수》는 비보림의 존재를 포착하면서도 그 개념적 기반을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완전한 전환이라기보다, 비보림의 의미는 우주론적 연상과 제국의 재해 방지 체계에 맞춰진 기능주의적 해석이 함께 작동하는 방향으로 변했다. 이는 단순한 소거가 아니라, '과학적 엄밀성이 결여되었다'는 명목 아래 우주론적 요소들이 피상적으로 참조되고 전략적으로 배제된 과정이었으며, 이러한 역도성은 이후 장들에서 더욱 자세히 논의된다. 이러한 양가적 전환을 통해 비보림은 제국, 지역성, 과학적 합리성, 그리고 우주론적 세계관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협상된 경계 객체로 기능하게 되었다. 존재론적 축소의 과정 속에서도 비보림은 여전히 작동하는 존재로 남아 있었으며 제국 임학의 분류 체계 안에 편입될 수 있었다.

44) Ibid., on 59.

45) Ibid., on 60.

46) Ibid.

47) Ibid., on 36.

5. 비보림의 비과학적 토대로서 풍수

비록 분류적 기능을 수행했음에도, 《조선의 임수》는 비보림과 같은 토착적 환경 실천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토쿠미츠 노부유키는 비보림을 '이른 역사적 시점부터 지속되어 온 독보적 실천'이자 '한반도 문화의 독특한 특징'으로 묘사하며, 한국의 독자적인 숲 보존 방식이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강조했다.⁴⁸⁾ 이러한 방식으로 토쿠미츠는 식민지 임업 공무원이자 연구자로서 한국의 풍수에 기반한 산림 관리의 역사적 정당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인정은 곧 토쿠미츠가 풍수를 '비과학적'이라 규정함으로써 무너진다. 그는 조산에 대한 비설에서 풍수를 '설명 불가능한 힘에 대한 믿음'으로 묘사하며, 이를 '정령 숭배와 점복 행위에 비유한다.⁴⁹⁾ 그의 해석에 따르면, 비록 조선의 통치자들이 숲의 실용적 효용을 이해하고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산림 보호를 위해 민중의 비이성적 신앙을 전략적으로 이용했으며, 풍수를 단지 그러한 신앙의 표징으로 전략시켰다.⁵⁰⁾ 이러한 틀 속에서 풍수는 과학적 사고의 경계 밖에 존재하는 문화적 유물로 축소되며, 숲이 비인간 행위자로서 지닌 행위성은 가려진다.

이 담론적 움직임은 대지의 행위성에 반응하며 풍수적 사유에 뿌리를 둔 우주론적 실천들을 단지 문화적 배경 정도로 재구성한다. 풍수에 기반한 실천들은 더 이상 장소에 맞추어 조율된 공감적 감응의 양식으로 인정되지 않고, 설명 불가능한 민속 신앙의 형태로 제시된다. 그 결과, 비보림이 제국 임업의 분류 체계 안으로 편입되더라도, 그 형성의 바탕을 이루는 인식론들은 체계적으로 배제된다. 다시 말해, 비보림이 제국 임업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 그것은 우주론적 기반을 실용적 효용의 틀 안으로 흡수된다. 이는 비보림이 완전히 해체된 것이 아니라, 맥락을 잃은 상태로 재조직되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비보림은 《조선의 임수》 안에서 단일하고 일관된 틀로 해석되지 않는다. 토쿠미츠 노부유키는 비보림을 풍수 우주론의 표현, 기능적 인프라, 혹은 지역 문화의 잔존물로 설명하며, 그 존재론적 위상을 불확정한 상태로 남겨둔다. 이러한 상충하는 해석들의 공존은 비보림이 지역의 우주론과 제국 산림 과학 사이의 경계 객체로 기능함을 드러낸다. 고정된 분류를 회피한 모호한 실천으로서, 비보림은 서로 다른 지식 체계들이 필요에 따라 이를 해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했다.⁵¹⁾

이러한 유동성은, 다른 한편으로, 비보림이 행위적 의미를 박탈당한 채 단순히 문화적 잔재로 폐기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오히려 그들의 모호한 위치는 비보림이 제국 임업 체제 내에서 여전히 능동적인 요소로 존속할 수 있게 했다.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해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48) Ibid., on 37.

49) Ibid., on 309.

50) 비과학적 산림 보호 관행은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숲은 오랫동안 의례적 금기나 우주론적 신념을 통해 보존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들은 수세기 동안 근대 임학의 영역 밖에서 지속되었으나, 일단 근대 산림과학의 시야 안으로 포섭되면 재해 방지, 생태계 서비스, 생물다양성 보전과 같은 과학적 기능의 언어로 재해석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번역의 과정 속에서 비보림과 같은 식민지 맥락의 다양한 토착 산림 보호 체계는 제도적 합리성과 지역적 우주론이 교차하는 경계 지대를 점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토착적 보호 논리는 근대 임학이 제도화한 '보호' 개념의 전제를 교란하며, 무엇을,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탈식민적 재사유를 요청한다. 전 세계의 성역림(sacred forests)과 관습적 산림 보존의 사례에 대해서는, see Hughes and Chandran 1998.

51) Star and Griesemer 1989.

비보림은 제국 임업의 기록인 《조선의 임수》 속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기능적 범주로 흡수되어 방어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서술되었다. 비록 본래의 우주론적 의미는 배제되었지만, 그 흔적은 물질적/관료적 층위 모두에서 감지된다. 이들의 지속적 존재는 제국의 과학이 완전히 종립화할 수 없었던 비인간 행위성의 끈질긴 지속을 보여준다.

6. 결론

비보림은 《조선의 임수》 속에서 주변화되었으나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제국 임학의 기능주의 체계에 의해 매개되며, 이들은 지역 인식론을 합리화하려는 식민지 지식의 한계를 드러낸다. 기술적 인프라이자 우주론적 유물로 동시에 규정된 그들의 모호한 위치는, 비보림이 제국 분류의 내적 긴장과 토착 우주론이 교차하는 중요한 장이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숲은 제국과 지역, 과학과 우주론, 인간과 비인간 행위성이 밀집하게 얽힌 다층적 실천의 장으로 드러난다.

제국 임학의 분류 논리에 따르면, 《조선의 임수》는 한국의 숲 경관을 재조직하며, 숲의 역사적/행위적 의미를 기능주의적인 범주인 보안림에 종속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론적 재배열 과정은 완전하지도, 일관되지도 않았다. 한지원과 같은 항목에서는 풍수에 기초한 토착 우주론의 틀이 계속 등장하며, 지배적인 분류 체계를 순간적으로 교란했다. 특히 산의 기맥이 마을의 생명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신념은, 숲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비인간 행위자로 이해되는 세계관을 반영한다. 비보림을 기능적 범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행위성에 대한 믿음은 기술적 언어로 희미해졌고, 대부분의 비보림은 재해 방지 인프라로 재해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화 행위는 이러한 숲의 생태적 효과에 대한 추론적 인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그들의 비인간 행위성이 제국 과학의 틀 안에서 일정 부분 등록되고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숲은 여전히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정착과 행정의 패턴을 형성하고, 식민지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 힘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성은 기술적 인프라의 논리 속으로 흡수되어, 지형, 기후, 재해 패턴 등의 정량적 데이터를 통해 추론되었고, 숲의 존재론적 위상, 즉 인간과 환경의 상호적 관계 속 행위자로서의 역할은 체계적으로 배제되었다. 비보림은 더 이상 산의 생기를 유지하는 존재로 간주되지 않고, 측정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존재로 전환되었다. 그 재분류는 숲의 효과를 지운 것이 아니라, 그 행위성을 기능주의적 합리성의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따라서 《조선의 임수》의 숲 번역은 단지 지식 체계 간의 경계를 구획하는 행위가 아니라 토착 우주론에 내재된 존재론적 관계성을 인식론적 효과의 체계로 변환하려는 식민 과학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다.

《조선의 임수》(1938)는 일본의 문화통치기에 편찬되었으며, 내지연장주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과학적 임학을 통해 식민지 환경을 재조직하려는 일본의 광범위한 노력을 반영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된 일본의 제국 통치 프로젝트 맥락에서 작성된 이 문헌은, 식민지 숲이 기능적 분류와 행정적 통제의 대상으로 재정의된 방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하고 한국이 해방됨으로써, 비보림을 보안림으로 재해석했던 식민지 분류 체계는 그 실질적 효력을 상실하고 종결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보안림의 개념은 제도적으로 계승되어 한국의 산림 관리에 영향을 미쳤지만, 비보림은 이 체계 밖에 남아 공동체

중심의 마을 숲으로 존속했다. 이러한 비편입은, 식민지 분류에서 간과된 풍수적 가치에 기반한 공동체 보존의 전통의 맥락이 지역 사회 속에서 계속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의 임수》는 보안림의 기능적 논리를 중심으로 조직된 환경 관리를 위한 식민지 조사로 기획되었지만, 이미 그 자체의 틀 안에서 해석적 긴장을 드러내고 있었다.

보호적 인프라로 재정의되었음에도, 이 숲들은 여전히 우주론적 설명의 흔적을 유지하며 물질적 효과를 발휘했다. 제국 과학과 토착 지식 사이의 조정을 가능케 한 행위적 힘을 지닌 경계 객체로서의 그들의 역할은, 제국의 분류가 우발적이지 협상적 실천이었음을 보여준다. 식민 합리성, 지역적 우주론, 비인간 행위성 사이의 상호작용을 부각함으로써, 본 연구는 《조선의 임수》를 일본 제국이 한국의 환경을 재구성하려 했던 미완적이고 불균등한 역사 속에 위치시킨다.

참고문헌

- Barton, Gregory A., *Empire Forestry and the Origins of Environment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Beinart, William, and Lotte Hughes (eds.), *Environment and Empi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Bennett, Brett M., *Plantations and Protected Areas: A Global History of Forest Management* (Cambridge, MA: MIT Press, 2015).
- Choi, Byung-Taek, "Changes in Japan's Private-Owned Forests Policy and the Background to the Introduction of the Woodland Taxes during the Early 1930s and the Implications Thereof," *The Journal of Korean History*, no. 138 (2007): 177-215.
- Choi, Jongsuk, "The Characteristics of Jinsan (鎭山) and Its Historical Meaning in the Chosŏn: From the Perspective of Changes in Eupchi Spatial Structure," *The Chosŏn Dynasty History Review* 45 (2008): 5-52.
- Choi, Wonsuk, "Identity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Pungsu (Fengshui),"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50, no. 6 (2015): 695-715.
- Endō, Yasutarō (ed.), *Nihon Sanrinshi (日本山林史) [History of Japanese Forestry]* (Tokyo: Nihon Sanrinshi Kankōkai, 1934-1936).
- Fedman, David, *Seeds of Control: Japan's Empire of Forestry in Colonial Kore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20).
- Grove, Richard, *Green Imperialism: Colonial Expansion, Tropical Island Edens and the Origins of Environmentalism, 1600-18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Hughes, J. Donald, and M. D. Subash Chandran, *Sacred Groves around the Earth: An Overview* (New Delhi: Oxford and IBH Publishing Co., 1998).
- Jang, Mi-ah, et al., *Research on Traditional Village Forests Recorded in The Forests of Joseon II* (Seoul: Saengmyeong-ui Sup National Movement, 2006).
- Jeon, Yeong-u, *Joseon-ui Sup-eun Wae Sarajyeonneunga? [Why Did the Forests of Joseon Disappear?]* (Seoul: Jogye Order Publishing House, 2022).

- Kim, Dongjin, and Lee Hyunsook, "General Introduction: Forests and Power – Reading Korean History through Environmental History," *Yöksa wa Hyönsil: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no. 103 (2017): 21–41, <https://doi.org/10.35865/YWH.2017.03.103.21>.
- Kim, Hak-Beom, and Dong-Su Jang, *Village Forests* (Seoul: Yeolhwadang, 1994).
- Kim, Tae-Hyun, "The Conflict and Characteristics of Forest Use Rights in the Colonial Period," *Yöksa Munje Yön'gu* 26, no. 2 (2022): 103–135, <https://doi.org/10.36432/CSMKH.48.202207.3>.
- Kim, Yongman, *Supeseo Mannan Hanguksa [Korean History Encountered in thKwon*, Seon-jeong, "The Normalization and Otherization of Pungsu's Jinsan and Jusans: A Case Study of County and Prefectural Seats in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28, no. 2 (2016): 51–68. *e Forest]* (Seoul: Holidaybooks, 2021).
- Lee, Hwa, "A Study on the Pung-su Belief (風水信仰) in Koryö (高麗)," *The Journal of Korean Historical Folklife*, no. 13 (2001): 159–177.
- Lee, Jin Sam, and Sang Man Park, "A Study on Doseon Guksa's 'Bibo' Thought: Chiefly on Pungsu, Docham, Yin and Yang and the Five Elements, Tantric Buddhism," *Korean Thought and Culture* 55 (2010): 483–509.
- Park, Bong-u, "Village Forests and Culture," *Journal of Korean Studies* 33 (2006): 195–232.
- Rajan, S. Ravi, *Modernizing Nature: Forestry and Imperial Eco-Development 1800–195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Rees, Amanda, "Animal Agents?" *History and Theory* 56, no. 1 (2017): 17–36. <https://doi.org/10.1111/hith.11370>.
- Seo, Jong-jin, "Japanese Imperialism's 'Naichi Enchō-ism' and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s 'Cultural Policy': Focusing on Prime Minister Hara's Joseon Rule Policy Statement after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Korean Journal of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 41, no. 2 (2020): 5–36.
- Shibuya, Shizuaki, "Observatory Report on Okinawa's Feng-Shui Practice and Phenomena of Hougo (抱護) and Tree Plantation: Notes for a Further Comparative Research on Feng-Shui Practices in East Asia," *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 no. 17 (2005): 93–131.
- Star, Susan Leigh, and James R. Griesemer, "Institutional Ecology, 'Translations' and Boundary Objects: Amateurs and Professionals in Berkeley's Museum of Vertebrate Zoology, 1907–39." *Social Studies of Science* 19, no. 3 (1989): 387–420. <https://doi.org/10.1177/030631289019003001>.
- Tokumitsu, Nobuyuki, *Chōsen Chisanchi Susakō (朝鮮治水治山史考) [Historical Study of Land and Water Management in Joseon]* (Keijō [Seoul]: Government-General of Korea, Forestry Experiment Station, 1935).
- Tokumitsu, Nobuyuki, *The Forests of Joseon (朝鮮の林藪)* (Keijō [Seoul]: Government-General of Korea, Forestry Experiment Station, 1938).
- Tokumitsu, Nobuyuki, *The Forests of Joseon*. Translated and annotated by Saengmyeong-ui Sup National Movement Headquarters. Seoul: GeoBook, 2007.
- Totman, Conrad, "A Century of Scholarship on Early Modern Japanese Forestry, 1880–1980," *Environmental Review* 9, no. 1 (1985): 34–53.